

한동대학교 제6대 대학평의원회

2017학년도 2학기 제2차 정기회의

(제1회 회의록)

구 분	평의원
의원정수	11명
재직인원	11명
참석인원	7명

회의 일시 : 2018. 01. 22(월) 14:00 ~ 16:00

회의 장소 : 현동홀 비전회의실

성원

1. 참석자 (7명)

배건웅 의장, 장규열 의원, 최규학 의원, 최유강 의원, 서충모 의원, 유승대 의원, 주병창 의원

2. 불참자 (4명)

황혜리 의원, 권상석 의원, 한윤식 부의장, 강사웅 의원

3. 안건 관련 참석자 : 지범하 기획처장, 구경훈 예산팀 과장, 곽진환 교무처장, 이종식 교무지원팀장, 권영광 교무지원팀 계장, 고범석 교무지원팀 직원, 이준철 동문(변호사)

4. 회의록 작성 : 차효성 과장(전략기획팀)

회의 안건

○ 2017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 예산(안) 자문

○ 김대옥교수 재임용 탈락 관련 총동문회 임시회의 요청건에 대한 내용 확인

① 일반적인 교원 재임용 절차 과정

- 교원인사규정 중 재임용 절차와 평가기준이 명시된 부분과 담당자의 설명

② 김대옥 교수 재이용 거부 처분의 경위

- 재임용 거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에 대한 설명

○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의결 및 토의

○ 2017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 예산(안) 자문

▷ 지범하 기획처장과 구경훈 예산팀 과장이 2017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질문 중 교직원의 보수 인상이 다년간 동결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배건웅 의장이 지적하면서 신임교원들의 생활과 특히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교직원의 임금인상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지범하 처장 : 학교의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금인상 등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학교의 재정을 관리해야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것과 앞으로의 환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에 대한 고민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다.
- 최유강 동문 의원

① 예전 대학평의원회에서 보고받았던 내용을 보면 갈대상자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로 유입되는 재정 중에 학교의 리더십이 원하는 비전의 방향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대부분 갈대상자와 같은 소액개인후원이다. 따라서 갈대상자 후원이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후원이 증가하면 현재 잠재적인 갈

등요인인 급여 동결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지난 10여년 동안 수백 억 이상의 후원을 증가시킨 노력과 사례를 스터디하고 우리도 배울 부분은 과감하게 배우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함께 중지를 모아야하는 이슈이므로 리더십만 짐을 질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논의함으로써 지혜를 모아야 한다.

- 배건웅 의장
 - ① 신임교수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매달려 있어서 기타 학생을 Care 한다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학생 교육이나 학생과의 교류가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학교의 분위기를 이전과 달리 Negative한 방향으로 바꾸는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에 교수수련회 등에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구성원의 고통 감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총장님과 이사회에서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임교수들과 기존교수들이 너무 바쁘고 이로 인한 학교의 역량 저하가 현실화되어 있고 교원임금 동결로 인한 사기저하가 높다.
- 최유강 의원 : 예전 미국의 대학사례 중에 델라웨어대학의 사례가 살펴볼만 할 것 같다. 학교의 소액개인후원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리더십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사용이 가능해질 때, 이에 걸 맞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유치하고 현재 있는 인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목표에 걸 맞는 쳐우를 해주는 전략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최규학 의원
 - ① 교원의 경우 퇴직하면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기준 충족을 위하여 충원을 하지만 직원의 경우는 퇴직을 하면 더 이상 뽑지 않는다. 이에 교수님들이 직원의 역할에도 참여하여야 하는 현실로 가고 있는 것이다.
 - ② 직원들도 교원과 같이 신입부터는 연봉제가 적용된다(지범하 처장이 교원은 신임교원의 경우 연봉제가 적용되지만 직원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여 지범하 처장이 퇴실 후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안내한 내용). 환경이 어려워도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좋은 인력이 단기간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인력 공백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원 충원을 통해 교수가 행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현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 장규열 의원, 지범하 처장, 최유강 의원
 - ① 장규열 의원 : 일반 후원금도 좋지만 동문들이 후배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형태까지 되면 가장 바람직 한 것 같다.
 - ② 지범하 처장 : 최유강 의원도 제안한 것이 동문회는 충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 ③ 최유강 의원 : 연세대학교 후원담당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우리나라 명문대학들의 동문후원 참여율은 2~3% 정도 된다. 한동대학교는 약 6% 수준이다. 한동대학교는 국내 타대학 동문 평균의 두 배 정도가 모교 후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동문후원 참여율이 50~70% 정도 되는 미국 small liberal arts college들에 비하면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이런 대학들은 적게는 수 명, 많게는 수십 명의 동문담당 직원들을 두고 동문들의 후원을 독려한다. 한동 동문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많이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 이번 모교의 지진피해에 대해 짧은 기간에 3억5천이 모인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을 놓치면 정말 아쉬울 것 같다.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동문들이 모교 후원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동문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동문들의 후원이 지진피해때처럼 일회성으로 지나지 않고 매년 3억~5억씩 동문

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야한다. 이번이 기회다.

- 배건웅 의장 : 학생 버스비 인상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수혜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학생들도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부 버스비는 1,200 ~ 1,400 원 수준인데 현실화 하여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도 자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동참이 필요하다.

○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 곽진환 교무처장과 이종식 교무지원팀장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였다. 일부 의견을 청취하면서 의원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상정내용으로 의결하였다.
- 최유강 의원 : 학부중심대학으로 서의 분명한 방향성과 중장기 전략을 공동체가 다 함께 인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박사과정 신설이나 새롭게 신설되는 학과들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설립되는 학과들일텐데, 학교 전체의 중장기적인 전체 그림이 없으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포지셔닝으로 개설되는 학과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전에 산업학부와 관련하여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공동체가 힘들어질 것 같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교원 수급도 맞춰서 계획하면 좋겠다.

○ 김대옥교수 재임용 탈락 관련 총동문회 임시회의 요청건에 대한 내용 확인

(안건 주제가 김대옥 교수 인사에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회의록 내용 작성이 제한됨)

- ▷ 곽진환 교무처장이 김대옥 교수 재임용 관련 경위와 절차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관련근거, 규정, 진행경과 정리 내용 등 자료 제공)하고 관련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정량적인 재임용 성적 미달여부 포함)
- ▷ 동문 545명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에 대해서 곽진환 교무처장이 조목별로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학교와 확인되지 않고 동문들 사이에서 수합된 내용을 작성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내용이 다른 것을 관련 근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 ▷ 최유강 동문회장이 미국의 캘빈대학교가 우리 대학처럼 유사한 사건으로 1년 이상 학내 구성원들과 리더십이 논의하여 도출한 합의 결과를 예시로 들면서 우리대학교가 향후에도 이러한 형태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아픔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대학차원의 논의를 통해 지혜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고 의원들이 동의하였다.
- ▷ 학교의 기독교 정체성이 회손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최선을 다해 기독교 정체성을 지켜나 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